

15분 모의고사 4회 정답 및 해설

(0906 모의평가)

문법

1.④ 2.③

1. 어휘·어법 (조사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조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에서 ‘할아버지에게’에 ‘는’을 써야 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는’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 조사 ‘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앞 문장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으므로 ‘는’을 써야 자연스럽다. ‘가’를 사용하면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③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된다. 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애교가 많지도 않다는 점에서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들과 대조된다.

2. 어휘·어법 (어휘의 적절한 분류)

정답해설 : ‘수군거리다’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남’은 제삼자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다’는 대화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수군거리다’를 대화 상대가 불필요한 B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구시렁거리다’는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는 의미인데 혼자서 중얼대는 말임으로 적절한 분류이다. ② ‘투덜거리다’는 ‘남이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자꾸 불평을 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대화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불만을 표현하는 말임으로 적절한 분류이다. ④ ‘웅얼거리다’는 ‘나직한 소리로 푹푹하지 아니하게 혼자 입속말을 자꾸 해 대다.’는 뜻이다. 대화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B에 분류되어야 한다. ⑤ ‘속닥거리다’는 청자 외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자가 필요하므로 C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독서

3.① 4.② 5.③ 6.①

[3-6] 인문,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의 의미와 가치’

지문해설 : 글쓴이는 매체의 발달로 사람들의 고통을 과거보다 더 많이 접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민의 정서를 갖지 않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연민이 생길 수 있는 두 조건을 제시하며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이 더욱 무더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 연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삼아 현대 사회에서 연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사람과 함께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연민이라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주제]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현대 사회에서의 연민과 연대의 필요성

3.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글쓴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이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연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인데, 이 말은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이 많아진다.’는 ①과는 의미가 다르다. ①은 ‘사회가 위험해지는 것’을 ‘연민이 많아지는 것’의 필수 조건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첫째 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연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낸다. ⑤ 연민에 대한 정의가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라는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다.

4. 추론적 사고(뒷받침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쓴이는 ‘현대 사회의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 의식할 수 있게 된 것’ 등을 근거로 연민이 그 어느 때보다 현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은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정황을 근거로 도출된 글쓴이의 생각이다. ㉡는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정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과 연결된다. ③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④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복잡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 ⑤ 직장을 잃는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이다.

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둘째 문단을 보면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보기>의 경수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여 준다.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이 할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며, 자신은 할머니와 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할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할머니의 불행을 할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방송을 통해 할머니의 불행을 접하고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④ 경수는 개인적으로 전화 모금에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경수가 연대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⑤ 경수는 할머니와 같은 불행을 자신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6.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너나들이하다’는 ‘서로 너나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성은 줄었지만’이란 내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스러운 모양’을 나타낸다. ③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지낸다.’를 뜻하고 있다. ④ ‘자주 만나지 못하여 낮이 좀 설다.’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다. ⑤ ‘낮이 설거나 익숙하지 아니하여 자꾸 어색하다.’를 뜻한다.

문 학

7.① 8.④ 9.⑤ 10.⑤

[7-10] 현대소설, 현길연, ‘신열(身熱)’

작품해설 : 한 신문사 기자의 눈을 빌려 역사의 왜곡 행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는 동시에 현재에도 우리가 어떤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와 조작을 일삼고 있음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 속의 ‘김만호 씨’는 일제 시대 친일 행위를 했지만 해방 이후에 출세한 인물로서 현재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강 목사’는 일제 때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김만호 씨에게 핍박을 받은 인물로 김만호 씨와 상반된 삶의 관점을 지녔던 인물이다. 지문에 제시된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이고,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의 입장에 서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의 관찰자이자 작품 속에서 기자 역할을 하는 ‘나’는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취재하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관계로 결국 좌절하고 만다.

[주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는 ‘나’와 ‘재종숙’의 대화, ‘나’와 ‘교장 어른’의 대화를 통해 주로 ‘김만호 씨’와 ‘강 목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들이 일제 강점기 때 및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화를 통해 초점이 되는 두 인물의 성격과 그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제를 암시할 만한 상징적 소재를 찾을 수 없다.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비유적인 언어를 부분적으로 구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8.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및 입장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서 서 있어서 ‘김만호 씨’의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를 두둔하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해 한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모두 만나 취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기에, ④처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만호 씨’가 일제 시대에 면장으로 일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으면서도 해방 이후에도 요란하게 행세를 했다고 한 데서, 그가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김만호’는 일제 시대에 관리로 일했고, ‘강 목사’는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제 폐쇄를 당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③ ‘교장 어른’이 ‘김만호’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재종숙’이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의 종노릇 한 사람이 그런 상을 받으면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성을 높여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9. 추론적 사고(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추론)

정답해설 : ㉞을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심리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재종숙’과 헤어지고 나서 ‘교장 어른’을 만나러 오면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다’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에게서 ‘김만호’의 새로운 면모를 찾지 못한 것은, 서술자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며 특별히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㉞에서 ‘재종숙’이 그때 일을 어제 일같이 말한 것은 그가 과거의 일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㉞에서 ‘재종숙’의 말

투가 점점 과격해진 것은 그가 '김만호'의 수상 소식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의 앞뒤 문맥에서 서술자가 관련된 사안을 예민한 문제라고 느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의 앞뒤 문맥에서 '교장 어른'이 일제 치하의 상황 논리를 근거로 '김만호'의 친일 행위를 두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추론적 사고(도표를 활용한 구성 방식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인물A)는 이야기Ⅱ 속의 인물인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 E)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재종숙'(인물B)과 '교장 어른'(인물C)을 차례로 만나서 그들에게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 E)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Ⅱ를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의 타당성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은 그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선구적 시민상'을 수상하게 된 '김만호'(인물 E)의 실상 규명이며, 동시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강 목사'(인물D)의 실상 규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야기Ⅰ과 이야기Ⅱ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야기Ⅰ(현재)과 이야기Ⅱ(과거)의 시간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③ 이 글의 갈등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갈등 관계를 통해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의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